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개편

지식경제부는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 사업을 2012년부터 전면 개편한다고 8월24일 발표했다.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 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관리하는 공간 등에 설치하는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1년 지원액이 69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다양한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관리하는 건물을 대상으로 일반사업, 지방자치단체 주관 국제행사 또는 범 정부차원의 녹색 시범사업, 사회 복지시설사업 등 3개 분야로 나누어 사업을 운영하고 사회복지 분야 재정을 확충해 나가기로 결정했다.

한편, 지식경제부와 에너지관리공단 부설 신·재생에너지센터는 8월24일 양재동 엘타워에서 16개 광역시·도 보급사업 담당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사업재정 집행상황을 점검하는 회의를 개최한다.

<화학저널 2011/08/24>